



#09
Natan Dvir

신(神)을 위하여

사람들은 종교를 위해, 신념을 위해 때론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 이스라엘 출신의 나탄 드비르(Natan Dvir)는 신에 대한 인간의 맹목적인 추앙에 주목했다.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등 신을 향한 그들만의 격정, 몰입, 그리고 평온 속 광기.



Friday Prayer © Natan Dvir



“나에게 있어 다큐멘터리 사진은 세상을 탐구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힌 것들에 대해 진심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한다.”

Natan Dvir

평온 vs. 분노, 고요 vs. 격정, 이해 vs. 광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명예, 그리고 누군가는 사랑… 모든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절대적'인 가치란 게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이런 복잡미묘한 시대에도 종교는, 그리고 신앙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절대적 존재인 신은 그렇게 인간을 지배한다. 한 개인을, 한 사회를, 그리고 한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의미 있고 심오한 요인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뉴욕에서 활동 중인 사진가 나탄 드비르(Natan Dvir)는 이스라엘 출신이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 종교와 신앙은 뿌리와도 같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의 역사가 혼재된 이스라엘에서 서로 다른 종교 의식, 정치적인 이슈들이 충돌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고 했었다. 〈Belief〉 시리즈는 이스라엘 전반에 걸친 종교적 의식, 정치적인 충돌 사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고요, 분노, 환희, 쟁탈, 이해, 광신 등 종교를 향한 다양한 테마를 극적인 앵글로 표현해냈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수하는 극단적인 상황들에 매료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꼈다. 동일한 종교 안에서는 강한 공동체 의식과 평화가 지배하지만, 반대로 서로 다른 종교가 충돌하면 상상 이상의 증오, 분열, 공격성이 분출된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두려웠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념을 실천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위기에 몰리게 되는지, 그리고 맹목적 신앙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등 다양한 면면들을 탐구하고 싶었다.”

종교의 이름으로

나탄 드비르의 〈Belief〉 시리즈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신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사람들 이 등장한다. 이슬람 사원에서, 물 속에서, 들판에서, 심지어는 쓰레기더미 앞에서 그들은 격정적으로 기도한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종교에 따라 기도의 형태는 다르지만 때론 수십 명이, 때론 수백 명이 신과 하나가 된 듯 기도에, 세례에 몰입해 있는 장면은 드라마틱하다 못해 전율마저 느끼게 한다.

실제로 종교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 나탄 드비르의 탐구는 그 중에서도 종교가 개

인과 집단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한다. 개인의 신념은 그들의 행동과 소통을 지배하지만 가장 깊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Friday Prayer'는 나탄 드비르가 이 시리즈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장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도시 엠알팜(Umm Al-Fahm)에서 촬영되었다. 약속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들렀는데, 마침 근처 이슬람 사원에서 금요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에 이끌려 그곳에 갔고, 그는 조심스럽게 촬영 허가를 받아냈다.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기도 중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사원의 계단을 오르다가 마음에 드는 위치를 발견하고 뷔파인더를 들여다본 순간, 수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연출하는 그 드라마틱한 광경에 흠뻑했다고 한다. 당시 떠오른 단어들은 바로 경건, 몰입, 평화, 절정이었다. 'Friday Prayer'의 결정적 장면은 그렇게 인상적인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현장에서 극적으로 촬영되는 다큐멘터리 사진들은 기록의 목적을 가진다. 가끔씩 어떠한 사건이 사진으로 남지 않으면(즉, 기록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일어난 적이 없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탄 드비르는 지금 이 세상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지금도 다큐멘터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글 | 조안 양정아(Joanne Junga Yang, 국제사진기획자) · 디자인 | 서바른

나탄 드비르(Natan Dvir)

뉴욕에서 활동 중인 이스라엘 출신 사진가이다. 정치, 사회, 문화적 이슈를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주로 작업하고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과 미국의 스쿨오브비주얼아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전향했으며, 현재 미국국제사진센터(ICP)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뉴욕의 폴라리스 이미지 사진에이전시와 아나스타시아 사진갤러리 전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휴斯顿 미술관, 포틀랜드 미술관, 클리블랜드 현대미술관, 산타바버라 미술관 등을 비롯한 미국, 유럽, 남미, 이스라엘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하였다. 그의 사진은 뉴욕 타임스, 뉴스 위크,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잡지와 저널에 게재된 바 있다.



1 Morning Prayer © Natan Dvir

2 Samaritans Pilgrimage © Natan Dvir



Baptism © Natan Dvir



1 Amona © Natan Dvir
2 Ramadan Prayer © Natan Dvir